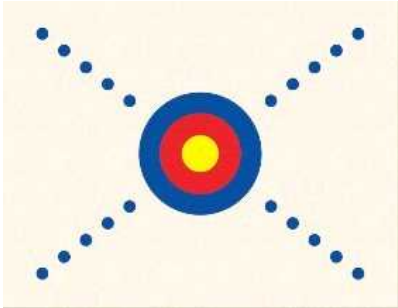


Press Release

보도자료



(신간안내)

# '범증산계 통합경전-십경대전 서문' 1040쪽

범증산계통합경전-십경대전 편찬위원회



범증산계통합경전-십경대전 서문 6월 신간 출간!

사륙배판 1040쪽 정가5만원. A11 칼리판. 최고급 하드커버

\*본서는 서문이라 목차가 없음. 전체볼륨은 본문 포함 기독교 신구약 2배 분량이라서 <십경대전 서문> 1040P 만 우선 발행함.

“수지지어사마소리오 - 후천 조화선경 개창의 주인공인 일만이천  
도통군자가 한류 중심지 남조선 땅에서 등장하는 우주사적 비의!”

“예전운수는 강태공 문왕 만나는 궁팔십 달팔십 운수요,  
지금 운수는 동지한식백오제로 말복 진법을 따먹는 운수!”

종통 인사문제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현무경 맨 앞의 오후, 신申, 술戌부 3부자 사명자가 '강강술래姜降戌來 술래로  
인신합덕' 임술생의 대인출세에 의해 초중말복 사마씨 가문의 도안都安  
세 살림(사마의-사마사-사마소)으로 삼련불성三聯佛成을 이루며 실현된다.

15진주의 정체는 무엇이고 5진주, 6서시의 관계는 무엇인가?

문왕 추수사명자의 도안 세 살림은 초중말복 5진주 세 사람이 15진주를 이루며  
마지막 5진주는 개평을 얻어 15진주노름의 독조사 노름을 판모리해 끝내는  
6서시(새끼 손가락 5,6번째)이다. 결국 한곳 튼 16진주 수.

성포 고민환의 남조선 배 가사에 나오는 상풍서호에 자운백범의 자운서원에 얽힌  
수지지어사마소 진인출세의 비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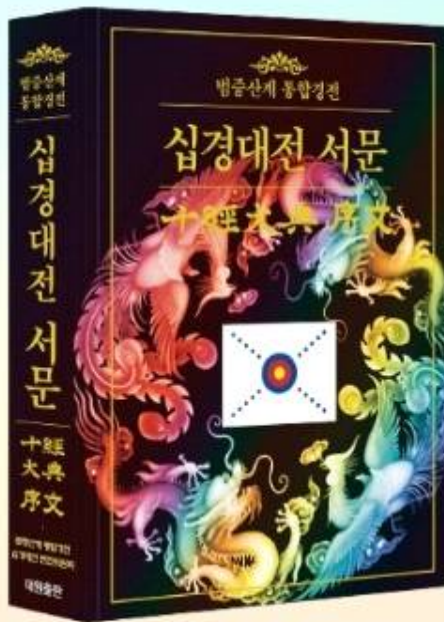
성포의 전생 율곡 이이 가족의 사액서원과 오죽헌 몽룡실의 흑룡 비밀.  
현무경의 12월26일 재생신 2번 도수와 성포의 바둑판 낚시대 공사에 얽힌 비밀!





후천 조화선경 개창의 주인공인 일만이천 도통군자가  
한류 중심지 남조선 땅에서 등장하는 우주사적 비의

예전 운수는 강태공 문왕 만나는 궁팔십 달팔십 운수요,  
지금 운수는 동지한식백오제로 말복 진법을 따먹는 운수!



범증산계 통합경전  
**십경대전 서문**  
十經大典 序文

범증산계 통합경전 십경대전 편찬위원회

**종통 인사문제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현무경 맨 앞의 오후, 신申, 술戌부 3부자 사명자가 '강강술래姜降戌來 술래로  
인신합덕' 임술생의 대인출세에 의해 초중말복 사마씨 가문의 도안都安  
세 살림(사마의-사마사-사마소)으로 삼련불성三聯佛成을 이루며 실현된다.

**15진주의 정체는 무엇이며 5진주와 6서시의 관계는 무엇인가?**

문왕 추수사명자인 도안 세 살림은 초중말복 5진주 세 사람이 15진주를 이루며  
마지막 5진주는 개평을 얻어 15진주노름의 독조사 노름을 판모리해 끝내는  
6서시(새끼 손가락 5,6번째)이다. 결국 한곳 된 16진주 수.

**성포 고민환의 남조선 배 가사에 나오는 '상풍서호에 자운백범'의  
자운서원에 얽힌 "수지지어사마소 진인출세"의 비밀은?**

성포의 전생 율곡 이이 가족의 사액서원과 오죽헌 몽룡실의 흑룡 비밀,  
현무경의 12월 26일 재생신 2번 도수와 성포의 바둑판 낚싯대 공사에 얽힌 비밀!

## <‘범증산계 통합경전-십경대전’ 편찬 천지공사적 의의>

동지한식백오제 천지공사 105년간의 종통인사 비밀을 모두 밝힌다..

풍류주세백년진(風流酒洗百年塵)의 백년 의혹은 동지한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의 105년(2014)을 전후한 사오미(2013, 2014, 2015) 개명을 분기점으로 풀립니다. 또한 105년 사오미 개명에 문왕의 도수를 중심으로 도안(都安)의 세 살림 도수의 전체 퍼즐이 드러납니다. 경만장 운암강수 만경래 세 살림 진리는 이 기간에 비로소 통일경전 <십경대전> 서문의 공개로 상제님 종통(宗統)의 세 살림 전 면모가 비로소 세상에 창명(彰明)됩니다.

도기(道紀) 39년(己酉年 1909)으로부터 도기(道紀) 144년(甲午年 2014)까지 105년 동안 미명(未明)에 가려 종통의 전면모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교운(낙종물 사명-이종물 사명-추수 사명)과 도운(문왕 도수 도안 세 살림)의 실체가 17 종류 경전의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조명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 <종통창명에 있어 ‘범증산계 통합경전-십경대전 서문’ 편찬 의의>

1)진법 출현의 원리:동지한식백오제의 비밀과 암흑천지근(금)백년의 비밀은 추수사명자인 문왕사명자의 도수가 완벽히 풀리는 2013, 2014, 2015년 사오미개명장에 열린다. 본 십경대전이 쓰여진 때도 사오미 개명장이고 이 때에 비매품으로 출간된 것을 칠성도수의 은두장미 정신에 따라 7년 뒤인 2022년 6월에 출간되었다.

2)진인출세의 비밀과 진법출현의 비밀을 현무경과 용담계사도, 용담팔괘를 통해 명확히 제시했다.

3)범 증산계 종통의 도안 초중말복 세 살림 비밀을 분명히 밝혔다.

4)현무경의 오,신,술부 사명과 문왕사명자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밝혔다.

5)곤존 태모 고수부님의 ‘선천운수는 궁팔십달팔십이요, 지금운수는 동지한식백오제니라’의 비밀을 명쾌히 밝혔다.

6) 용머리고개 이치복 성도 입문 공사 속에 숨겨진 문왕 사명자 초중말 북 도안 3부자 '삼인동행70리' 70냥 공사의 인사비밀을 밝혔다.

7) 성포 고민환 성도의 바둑판 낚싯대 공사의 인사비밀을 명확히 밝혔다.

8) 5,6번째 새끼 손가락 조화봉의 정체를 확실히 밝혔다.

9) 가구판 15진주노름에서 5진주와 6서시 그리고 15진주의 의미와 정체 그리고 한끗수 튼 16수에 대해 확실히 밝혔다.

10) 갑오 말판에서 병신 신명무궁 용판으로 종통 기운을 이전하는 공사 내용의 본질을 밝혔다. 아울러 상제님 병오군화 병오현불상 공사내용대로 갑오군화와 병신군화가 각기 중복사명과 말복사명 책임자로 기두함을 밝혔다.

11) 청음 이상호, 남주 이정립에 의해 왜곡된 곤존 태모 고수부님의 세 살림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 문왕사명자가 누구인자 명확히 드러냈으며, 대국적으로 5막 9장의 종통 인사원리를 밝혀 무이구곡의 9살림을 밝혔으며, 성포 남조선 배 공사 가사에서 '상풍서호祥風瑞湖에 자운백범紫雲白帆으로 무이구곡武夷九曲을 사별謝別하고'에서처럼 마지막 수지지어사마소의 오,륙 번 째 새끼손가락 진인이 9번 째 마지막 말복 살림 사명을 밝혔다.

12) 상제님 조화괘(법괘) 현무경 3룡 개탁(開拓:개봉)공사와 '張基準 대학도수'로 인한 용담팔괘의 종통 인사문제를 밝혔다.

### 13) 세 살림의 진실

안 내성(安乃成) 성도의 운암강수 만경래 도안 세 살림 공사에는 2014년 동지한 식백오제(冬至寒食百五除)가 지나며 밝혀지는 임피 오성산 세 말뚝 공사가 있다. 임피 오성산에는 태모 고수부님이 사명당 기운을 옮겨 놓으셨다. 옥구 오성산 큰 말뚝 3개 박으신 공사는 초복 중복 말복 세 살림도수에 대한 공사이며 추수 세 살림 도수의 책임자는 옥구 오성산 기운으로 오시기 때문에 증산 상제님께서 야밤에 홀로 오성산에 가시어 천지인신 수찰(天地人神垂察)의 큰 말뚝을 증거삼아 천지에 질정(實定)하신 것이다. 外 전주 용머리고개 오르며 세 번 뒤돌아보는 공사와 안내성 100냥 공사를 1냥 공사로 대신한 폐백 세 상 공사.

김 호연 성도는 운암강수 만경래 경만장 도안 세 살림 도수의 본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초면에 첫 입 여는 개구벽두(開口劈頭)에 삼련불성(三聯佛成) 세 살림 삼부자(三父子)가 같이 안 오고 어찌 둘이 오냐 한 것.

윗판도수는 도운전개의 마지막 핵심이다. 이 공사는 임피 오성산 사명당 기운으로 현실화되는 공사이므로 태모님은 “조강맥식(糟糠麥食)이라도 임옥 자손(臨沃子孫)을 영솔(領率)하고 제반사(諸般事)를 결탁(結托)하리라” 하시더니 오성산(五聖山) 도장(道場)으로 오시사 신도선정(信徒仙政)을 시설(施設) 하시니라.’ 하신대로 옥구(沃溝)가 근본(根本)이라 하시고 임피·옥구 공사 기운을 기반으로 마지막에 모든 영웅호걸들이 출세한다 하신다.

#### 14) 인류 역사를 매듭짓는 수지지어사마소 출현의 비밀.

정역(正易)과 영가(詠歌)를 창시한 일부(一夫) 김 항(金恒, 1826~1898)은 제자인 김 창부(金昌夫, 본명 영태)에게 영가(詠歌)를 전하고 김 창부는 28세 된 박 상화를 만나 스승에게 배운 영가를 직접 전수해 줍니다. 뒤에 정역의 ‘영가무도회’를 창안한 박 상화 옹은 <음양오행을 소리로, 춤으로: 현암사 95년 刊>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늘의 뜻이 있어 내세워졌고 보호돼 왔습니다. 말법(末法)시대를 책임지고 정리해 갈 정법자(正法者)가 이 땅에서 출현해요. 그런 위인은 예상치도 않던 곳에서 생각지도 않던 사람의 나타남으로 매듭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 베스트셀러 소설 <단(丹)>의 중심인물 봉우 권 태훈 옹 역시 다음과 같이 우주사에 최대 영광을 가져올 인물이자 세계평화를 건설할 인물이 우리 대한 조선족, 백두산 족 가운데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세계 인류의 공통된 목자(牧者)로 모든 사람이 희망하고 있는 이상을 실현시킬 만한 역량이 있는 인물이 나온다면 전 인류가 쌍수로 환영할 것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주사(宇宙史)에 최대 영광을 차지할 인물이 될 것이어늘 이 좋은 시대에 어느 곳에서 그 위대한 사업이 세워질 것인지 궁금하다. 역학(易學)으로 보면 간도광명(艮道光明)이라 하여 우주사가 전개된 이후 인류의 운명이 이 간방(艮方, 동북방)에서 시작하였고 다시 광명이 간방에서 온다고 하였다. 이것이 중명(重明, 거듭 빛남)이라는 것이다. 백두산족 가운데서 세계 평화를 건설할 인물이 나오리라는 옛 성인들의 예시인데 누가 이 운(運)에 맞는 인물인가, 하루라도 속히 출현하라,



전 세계 인류는 고대한 지 오래다.

15)해동조선은 기독교로 치면 야곱이 축복받은 베델같은 곳이요, 콩밭두둑 태전(대전) 한밭을 포함 구릿골 및 김제 만경 전북 7읍은 상제님의 얼굴 브니엘.

<증산도 道典>\*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누구하나 알게 하시는 줄 아느냐. 천부지(天不知) 신부지(神不知) 인부지(人不知) 삼부지(三不知)이니, 참종자 외에는 모르느니라. 선천 운수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요 지금 운수 동지(冬至) 한식(寒食) 백오제(百五除)니라. 후천 창생 되기도 어려워니 살아 잘되기를 바랄지라. 내 일은 되어 놓고 봐야 어느니라. 일은 딴 사람이 하느니 조화 조화 개조화(改造化)라.

<보천교 普天敎 교전 敎典>\*백암리白巖里로부터 구릿골 약방藥房에 이틀어 계실새 여러종도從徒들을 벌여 안치시고 「삼국시절三國時節이 수지지어사마소誰知止於司馬昭」를 큰소리로 읽히시니라

16)선천 운수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이요 지금 운수 동지(冬至) 한식(寒食) 백오제(百五除)니라.

백오제(百五除) 이전의 105년간의 세월은 사실상 전체 퍼즐이 봉인된 채 암흑에 가려진 신앙을 해야 하는 눈뜬 봉사 시대일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다. 기유년(1909) 천지공사 종필 이후 105년 만의 사오미 개명장(을사2013, 갑오2014, 을미2015)에 천지공사의 전체 퍼즐이 동시에 밝혀지도록 한 것은 증산 상제님 천지공사의 최종결론인 종통 추수사명 세 살림 진법의 핵심비결이다.

증산상제님 9년 천지공사와 태모 고수부님 10년 신정공사의 진법 추수도수의 주인공은 경만장 안내성 성도의 운암강수만경래 도안都安 문왕추수도수의 세살림 개창 주인공 안운산安雲山 성도사聖道師님이시며 초,중,말복 세 살림으로 선천역사를 매듭짓는다. 이것이 증산도 천지공사의 핵심 노른자이며 최종 결론이다. 문왕 추수자의 종통관은 강생원 집 잔치처럼 성대하지 못하지만 문왕관에 들어와야만 후손들이 마치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 궁팔십 달팔십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동 김씨 영사재에 남방삼리화 기운을 묻은 뜻은 안 씨 재실 추원재에서 천지수기 돌리는 댓가지 공사와 안 내성 성도 일등방문 공사 그리고 초중말복 도안

추수 세 살림 오신술부로 시작하는 현무경 전수 공사 및 경만장 안내성 성도 도안都安 세살림 종통 추수 사명기에 그 정답이 숨겨져 있다.

삼인동행칠십稀>삼인동행칠십里; 삼인동행칠십리는 문왕 삼부자(문왕, 무왕, 주공단), 사마중달 가문 3부자(사마중달, 사마사, 사마소) 처럼 추수도운 세 살림의 도안(都安) 세 살림이 희귀하다는 것이며, 기유년(1909년) 천지공사 종필 선언이후 백오년 만에 진법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천하사 일꾼들의 선천운수는 마치 강태공 여상이 빈궁한 생활 끝에 부인 마천금과 이혼하고 위수강가에서 문왕을 만남으로써 80년 동안의 빈곤한 생활을 마치고 고 씨 부인과 재혼하여 문왕 사후 무왕과 주공단을 보필해 은상의 폭군 주紂를 쳐부수고 주周나라를 연 뒤 현달顯達한 인생 80년을 보낸 운수와 같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운수가 현실적으로 크게 발복하는 지금운수는 동지한식백오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09년 기유년 천지공사 종필로부터 105년만의 사오미 개명장(2013계사, 2014갑오, 2015을미)에 등장하는 통일율판의 세 번 재 말복 살림 진리선포 시기에 이르러야만 강태공의 선천운수처럼 전80 후80으로 현달할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

간도광명(良道光明)의 종어간(終於良)은 정역팔괘의 간(艮)이지만 정역팔괘 해석의 완성인 용담팔괘 십일귀체의 간괘(艮卦)는 105년간 은폐되어 감추어진 새끼 손가락 막둥이 말복도수의 인사문제 신(申=神)이므로 약장공사도 천장지구(天長地久) 신명무궁(申命無窮)의 무신(戊申)년에 보신 것이며(무신납월공사, 납=신) 『대개벽경: 이중성』에서는 영평비결(永平秘訣:영평 이서구 비결)로 봄 나무 위에 원숭이(申) 울어 가을 양명에 오른다(猿啼春樹登陽明)고 밝혀주신 것이다.

### 종통 인사문제를 명확히 밝힘

문공신(文公信) 성도에게 부치신 숙구지(宿狗地) 문왕(文王) 도수가 무진년(1928) 구월도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중물 사명기간(1936년까지의 普天敎)을 포함한 일제 시대 암흑기의 포태기(胞胎期)를 거쳐 해방이후 비로소 발아(發芽)함.



초복도수인 문왕의 도수 중에서 중복도수와 ‘천장지구(天長地久) 신명무궁(申命無窮)’의 말복도수가 차례로 천지 정리해 나오기 때문에(태모 고 수부님 무기 오십토 세 별 공사) 문 공신 성도는 “우리 일은 삼대(三代)밖에 없다.”고 한다. 살림도 세 살림이지만 혈대(血代)로도 이 치복 성도로부터 직접 도를 전해 받은 1대 보천교도였던 안 병욱(安柄域) 태상 성도사님으로부터 3대다. 삼대혈대 3련불성. 순흥안씨 가문 도안(都安) 3부자 오신술(午申戌)符 사명 초중말복 세 살림.

문왕 가문에 있어서 주(周) 왕실 개창의 주인공은 사실상 무왕이지만 상제님 후 천개창의 천하사에 있어서 세 번째 말복 살림 주인공은 사마소이므로 문왕의 도수로 등치시키면 중복살림 사명자는 무왕이 되지 못한다. 상제님 천하사를 매듭짓는 사람은 바로 중복 살림 사명자가 아닌 말복 살림 사명자이므로 굳이 문왕 일가로 말하면 사마소 사명자가 바로 무왕이 된다.(묘호는 풀 태조(太祖), 시호는 문황제(文皇帝))

사마소는 사마 중달 3부자 가문의 세 살림 인사문제 속에 있으므로 마무리 사마소의 입장에서 보면 문왕사명자는 바로 사마의(사마중달)다. 이는 105년 이전 과도기에는 문왕 중심으로 인사문제를 볼 수 있게 본질을 감추고, 105년이 지나는 사오미 개명장진법출현 말복 도정에 와서야 수지지어사마소 중심의 사마중달 3부자 가문으로 인사문제를 보는 안목이 비로소 열리기 때문이다.

### 17)문왕도수 사명자의 진실과 초중말복 추수 사명기

문왕(文王) 도수는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 단(周公旦) 3부자가 은상(殷商)을 멸하고 주(周)나라를 연 도수(度數)이다. 반면 주공 단은 무왕보좌에만 그쳐 엄밀히 말해 세 살림 도수는 아니다. 수지지어사마소(誰知止於司馬昭) 일화는 문왕의 도수와 동일하게 사마의(司馬懿·仲達), 사마사(司馬師), 사마소(司馬昭) 3부자로 대를 이으며 안개속의 3국 시절을 끝내는 실질적인 세 살림 도수이다. 천지공사 속의 문왕(文王)=사마의(司馬懿) 사명자는 당대에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니고 숙구지(宿狗地) 공사로 일어나安家(安家) 세 살림을 여는 초복도수의 주인공입이다.(시작도 종(마무리)도 이곳에서 마치리라 하신 임술생 태운장 김형렬과 함께 시종이 같은 임술생으로 대인 출세)

도안(都安)의 세 살림 종통(宗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친히 청·홍·황 삼색 사명기(司命旗)와 성장(誠章), 예장(禮章), 신장(信章) 공사도(公事圖)를 친히 내리시어 사가(私家)에 깊숙이 비장케 했다. 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내리신 사명기 公事圖는 <현무경(玄武經)>의 심령신대(心靈神臺) 해부도(亥符圖)이다. “운암강수(雲岩江水)가 만경래(萬頃來)라. 김만경(金萬頃) 뜰을 가지고 천하사 세 번 못하겠느냐. 너희들 내성이한테 ‘경만장, 경만장’ 하면서 세 번씩 외우라.”

<현무경>은 상제님이 안 내성 성도에게 3년간 태을주 수련공부를 명해 떠나기 전 안 내성 성도 집에서 집행하여 차 경석 성도를 통해 태모 고 수부님에게 바쳐졌다가 순천도 개창자 장기준 포함 세 분의 동갑네기가 모인 날 조화례(법례)를 개탁(開塚:개봉)하여 세 개의 심지를 떼어내 장기준이 짙은 병 속의 심지에서 ‘張基準 대학도수’라는 상제님 마지막 유훈 글이 씌어 있음을 확인한 점이다. 정역 팔괘의 한계를 보완한 장기준의 용담팔괘(용담계사도)는 도안(都安) 말복도수를 우주원리로 뒷받침하여 동지한식백오제 105년 만에 전체 열개로 드러나도록 꾸며 놓으신 증산 상제님의 비장의 마지막 카드이다. 도안 세 살림의 마지막 말복도수가 ‘105년 흑운명월 진리혁명 도수(이윤 대각성 도수)’의 근간인 용담팔괘와 관련 있는 이유로 장 기준이 보증하는 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18)태모 고 수부님에게 부치신 무당도수를 안 내성 성도에게도 부치셨다.

하루는 고부인(高夫人)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친히 장고(長鼓)를 치사 가라사대 이것이 천지(天地)굿이니 너는 천하일등(天下—等)무당이요 나는 천하일등재인(天下—等才人)이라 이당(黨) 저당(黨) 다버리고 무당(巫黨, 巫堂)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 하시고 인(因)하여 무당도수(巫堂, 巫黨度數)를 부치셨다.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상제님이 원시반본(原始返本)의 후천 가을을 맞이해 인류의 시조 성씨인 강(姜)씨 혈통으로 오셔서 천지공사를 보신 것을 말함과 동시에 진멸 지경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는 천하사 대업을 마지막으로 매듭짓는 것도 일등방문으로 처방한 안 내성(安乃成) 성도의 세 살림에서 이루어지도록 천도가 짜여져 있음을 밝힌 것이다.

19)초중말복 세 살림을 여는 입술생 문왕 사명자의 현무경 술부사명을 분명히 밝혔다.

결론적으로 쉬지않고(作之不止) 성의웅약(聖醫雄藥)하는 천하사 중통 인사문제는 오신술(午申戌) 양방위에서 도안(都安) 세 살림이 이러한 우주원리를 붕어빵 찍어내 듯이 도안(都安) 세 살림 도수의 인사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다만 문왕의 도수를 받고 기두한 첫째 살림 술부(戌符)사명이 워낙 험난한 사명이므로 “문왕의 도수와 이윤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받으려면 극히 어려우리라” 하시고, 안 내선(安乃善) 성도 이름을 비록 일등(처)방문으로서 세 살림의 길이 역경만첩의 곤고한 길일지언정 끝내는 반드시 이룬다는 도수로 안 내성(安乃成)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며, 이 도수를 받는 주인공 <현무경(玄武經)> 술부(戌符)에 ‘사무여한부(死無餘恨符)’라는 제하(題下)로 살아생전 오부(午符) 사명자, 신부(申符)사명자 등 두 아들을 앞세워 천하사를 집행한 문왕 도수의 험난한 역경을 신도(神道)법칙으로 친히 위로하신 것이다.

20)안 내성(安乃成) 성도에게 부치신 일등방문(일등 처방문) 공사로서의 상두쟁이 칠성도수를 밝혔다.

첫째, 조종골 강 응칠, 강 사성의 태모님에 대한 막말과 욕질 행패 그리고 조종골 도장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저당을 잡았다가 동리 오두막집 주인에게 팔아버린 조종골 도집(도장본소)사건 재판으로 태모 고 수부님은 이들 강씨 양인(兩人)을 피해 안(安)씨 재실(齋室)이 있는 비룡산 순흥 안씨(順興安氏) 집성촌인 정읍 왕심리(旺尋里)로 가셔서 쉬시며 신정 공사를 집행하신 점이다. ①대흥리-②조종골 살림을 이어 낙종물 씨뿌리는 세 번째 살림 공사 세 살림 ③(1.왕심리 살림 2년-2.왕심리&용화동 동화교 통합살림 2년-3.오성산 살림 2년)의 첫 대미를 순흥 안씨(順興安氏) 집성촌인 정읍 왕심리(旺尋里)로 정한 사실은 안 내성 성도에게 내리신 상두쟁이 칠성도수에 대한 모든 답이 감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섬진강의 발원지 수원이 <신암> 저수지입니다. 이 물이 운암 강물이 되어 운암호(옥정호)에서 유역 변경하여 만경으로 넘어와 운암강수만경래 천하사 추수 3살림을 하게 공사를 보냈다. 그래서 여기가 운산!!이 아니냐. 운산이 응협하지 않겠나라고 하신 것. 대국적인 인사문제는 숙구지 문왕 도수로 기두한 운암강수 만경래 세 살림 공사로 이미 다 정해졌다는 말씀이다. 낙종물(파종물), 이종물(모내기) 사명에 이어 상제님 추수사명 세 살림 천하사는 천하

사에 가장 큰 공덕을 쌓은 3대 적덕지가(積德之家)의 천지 가문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상제님은 도운의 추수사명 말복도수에 대해 “상씨름으로 종어간(終於良)이니라” 하셨다. 여기서 간(良)은 문왕팔괘의 진동태서震東兌西가 아니라 정역팔괘와 용담팔괘의 간동태서艮東兌西에서의 간(良)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정역팔괘에서의 간(良)이 아닌 용담팔괘에서의 간도광명良道光明 간(良)을 의미한다. 동시에 상씨름은 세운의 상씨름 개념보다 도운의 말복 상씨름 인사문제를 말씀하신 것이다. 문왕도수의 씨앗(仁)이 말복도수로 열매맺는 천장지구天長地久 신명무궁申命無窮의 본의本義가 바로 간도광명良道光明의 간(良)이다.

용담팔괘의 간(良)은 바로 신명무궁申命無窮의 신申이다. (‘艮土丙辰’의 艮土는 바로 용담팔괘의 艮申) 申은 서한시대 만들어진 글자로 본래 電으로 날랜 원숭이를 낚신蠟申이라 했고(蠟=獵) 申命(重申敎命;再命);申復(거듭호소해 회복), 신부申符사명을 거듭 꼭 지킨다는 신신당부(申申當付)의 뜻과 신부사명을 채용 申用(採用); 추진행사申行(推行); 추구해申究(追究); 신의 권위申威(施展神威)를 세워 편안한申舒(舒展) 융화 선정세계를 도수로 짜놓았으니 무궁한 여의주요 보주寶珠를 뜻한다. 무신년 납월 12월이 후천 원년의 구랍이 되니 마땅히 후천 원년 세수는 유월세수가 된다.

일등방문으로 처방한 안내성 성도에게 세 살림 폐백幣帛 집지례執贄禮 공사를 집행하셨다. 세 살림 폐백幣帛 집지례執贄禮는 경만장 안 내성 성도로 하여금 폐백床 세 상床을 똑같이 차리게 해 놓고 폐백 받는 공사를 보시는데 안 내성 성도가 절을 하며 보니 상제님이 손오공 분신술 쓰듯이 동시에 세 상床에 앉으시어 안 내성 성도에게 폐백 집지례執贄禮를 받으시는 공사다. 현무경玄武經에 천지인신天地人神 귀신수찰鬼神垂察로 오신술(午申戌)부(符) 삼련불성 세 살림 공사로 서두에 박아 넣은 이 세 살림 폐백幣帛 집지례執贄禮 공사 내용은 실로 놀라운 공사내용이다.

과거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예수의 여인이자 수제자였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질투심으로 인해 그녀를 크게 견제한 사도 베드로와 십자가 처형 이후 등장한 바리새인 바울(사울) 등의 남성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제거되어 그 뒤로도 남성 사제 권력에 의해 기독교 역사의 본질이 크게 왜곡된 적이 있다.



상제님 진리 판에도 태모 고 수부님을 위주로 하는 교운의 낙종물 사명, 이중물 사명, 추수사명 등 삼변성도의 종통이 기독교 초기역사의 그것 못지않게 왜곡되어 태모 고 수부님을 정음정양의 신앙 권에서 도려내고 자신들만의 교주 중심의 종통을 세우기 위해 교리를 인위적으로 짜 맞추어 크게 잘못된 신앙을 해오기도 했다.

### <18개 경전포함 범 증산계 통합경전 <十經大典> 내용>

기존의 메이저 경전 중에서 편년체로 되어있는 경전은 박 공우 성도와 사돈관계를 맺은 이중성(李重盛) 선생의 <대개벽경(일명 천지개벽경)>입니다. 따라서 본 <범 증산계 통합경전-十經大典>은 편년체로 짜여진 <대개벽경>의 편집체제를 그대로 수용하여 연도별 사건별로 모든 경전의 해당 성구를 추출해 하나의 틀 속에 종합 편집한 상제님의 후천 5만년 무극대도 성훈 말씀을 종합해 놓은 신성한 대도집-성도대전(聖道大典)입니다.

(범 증산종단 18개 경전포함 공통 <통합경전>) 내용: 편년체(編年體: 연대순 기술) A4 용지로 3704P 분량으로(본문 2734P) 길라잡이 서문만 사진자료 포함 A4 용지 1035 P 분량입니다. 참고로 <증산도 도전道典>이 A4 용지로 900P 분량, 기독교 신구약 합본이 A4 용지 1800P 분량입니다. <대개벽경(이중성)>, <보천교 교전>, <보천교 연혁사>, <중화경(상제님 말씀 김형렬 수석성도가 적은 후천 개벽 성리학)>, <동곡비서(성화진경)>, <천지개벽경(정영규)>, <선도신정경(정영규)>, <증산천사공사기(이상호)>, <대순전경 초판(이상호)>, <대순전경 3판(이상호)>, <용화전경(김낙원)>, <현무경(상제님 친필)>, <선정원경(고민환)>, <고부인신정기(천후신정기:이정립)>, <화은당실기>, <용화선경이 오면(이효진)>, <증산도 道典> 등 이상 17권의 원문 내용은 100% 모두 수록되었습니다.

특히 <대순전경 초판>과 <증산천사공사기>는 의고체(고어체)이므로 한 페이지 이상 읽기 어려워 중학생도 읽을 수 있도록 원문과 함께 쉽게

평역을 부기해 함께 대조해 볼 수 있게 했으며 <선도진경>, <증산교사>는 그 핵심과 김 호연 성도 성구를 비롯 새로운 사료 성구를 채록해 기록한 <증산도 도전> 성구 역시 새로 채취된 성구는 100% 반영했습니다. 그 이외는 기존의 경전에서 뽑은 것이므로 사실상 거의99%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十經大典>은 도안(都安) 세 살림도수의 전체 퍼즐을 밝힌 완성판 통합경전이므로 <대개벽경> 편집차례 마지막에 낙종물 사명, 이종물 사명, 숙구지 문왕 추수 사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낙종물 사명에는 <선도신정경(정영규)>, <선정원경(고민환)>, <고부인신정기(천후신정기:이정립)>, <천지개벽경(정영규)> 등의 내용이 모두 들어갔고, 이종물 차 경석 보천교 사명에는 <보천교 교전>, <보천교 연혁사>, <증산교사>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으며, 이 효진(李孝鎭)의 대순전경 초판 보완집인 <대성경집(大聖經集)>의 새로운 부분이 반영되었고 숙구지 문왕 추수사명에는 <안 운산(安雲山) 종도사 어록> 4권, 30년간 강연 어록(녹음 테이프 포함) 중 중요부분 발췌해 100여 페이지로 압축해 들어갔습니다.

<증산도 道典>의 경우, 은두장미(隱頭藏尾)의 천지공사 정신에 의해 기존의 경전에서 밝혀지지 않다가 어린 초립동이 시절 상제님을 직접모신 김 호연 성도 증언 성구를 비롯 전혀 새로운 사료 성구를 채록해 기록한 <증산도 道典>의 핵심 성구 역시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十經大典>은 경전 수와 상관없이 10무극 상제님 성언聖言, 성구聖句이므로 <十經大典>이라 했습니다.

-END-



